

#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 활동 돌입

###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민주당 77명 의원 전원 결의

‘김대중 대통령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2024년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김대중대통령 탄생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당 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사업준비를 위해 위원장 포함 총 17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3선 박옥분(수원2) 의원, 수석부위원장에는 재선 이기형(김포4)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김용성(광명4), 김



‘김대중 대통령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토론회, 평화기행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성수(안양1), 강태형(안산5), 김창식(남양주5), 김동희(부천6), 김동영(남양주4), 명재성(고양5), 이용욱(파주3), 박진영(화성8), 이재영(부천3), 전석훈(성남3), 임창휘(광주2), 정동혁(고양3), 최효숙(비례), 황세주(비례)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기획담당 김동영(남양주4) 의원을 필두로 한 실무 기획단도 꾸려져 중

앙당 기념사업준비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방침이다.

박옥분 위원장은 “평생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록하고 기리는 기념사업에 큰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고 전하며 “활동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김대중 대

통령께서 남긴 발자취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토론회, 평화기행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

## 의회 단신

### 전세 사기 피해자 빠른 지원 촉구

####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빠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주당, 비례·사진) 의원은 최근 있었던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주거복지기금 설치 제안 관련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김대영 의원은 1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네 차례 시정 질의를 통해 대책안 마련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급전적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질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작한다는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가



장 피해와 규모가 큰 인천시는 더욱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한 수처에 해당하는 실태조사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에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강릉전세 등과 같이 가해자가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해야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 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이고 꼬이 터져 버린 상처에 감염될까 만지지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종삼 기자

# 주민들 문화체육 복지 구현에 기여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양시 선진사례 현장 방문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가 지난달 31일 고양특례시 선진사례 현장방문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태완 대표위원을 비롯한 고선희·송승환·송이 의원부터 정영신·전재은·이규택 자문위원까지 모두 참석해 연구활동을 이어나갔다.

고양시는 문화·체육 시설을 한 공간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돼 문화·체육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뛰어나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 구현에 기여하고 있어 이번 현장방문 지역으로 선정됐다.

현장방문의 첫 목적지로 고양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방문해 공연장, 미술관 등을 확인하며 시설 현황과 주민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했다.

어울림누리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의 주제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낮춰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했다.

이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방문해 열음마루, 별무리 경기장 등 주요시설을 방문하며 서구의 문화 체육 발전 정책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의원간담회장에서 열린 ‘인천 서구 문화 체육 발전 정책안’ 중간보고회에서는 △개회 및 소개 △용역중간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7월19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연구수행 상황을 검토하고 인천 서구형 문화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원들의 의견

을 제시했으며 특히 설문결과가 반영된 현실적인 정책안 수립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연구단체 대표 정태완 의원은 “강릉·고양 등 선진사례 등이 접목된 우리 서구의 환경에 맞는 문화·체육 정책안이 수립돼 주민의 문화 향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단체는 주민의 문화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고자 지난 7월 23개 동 주민자치회 총 58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안종삼 기자

### 경기교육청 추경예산 신중한 편성을

####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국민의힘, 수원·사진) 의원이 11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등을 비롯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질의에서 장애학생 체육 활동 신규사업과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 신중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교육담당관

에 2024년 인터넷 증속 사업, 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특수교육과정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융합교육국장에 교육활동 보호 환경에 필요한 전화기 구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 체육활동 신규사업 2억원 추경에 대해 “경기도 장애 학생 및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 현실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센터에 스크린 사격과 AR클라 임프 체험 물품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품·금액·호매실동) 의원은 ‘수원시 건설노동자들의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인 제378회 임시회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희열 기자



작으로 사업시작 3개월 만에 사업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전화기 128억원에 대해서는 “교원 보호를 위해 128억원을 들여 전화기를 구입한다는 방법보다 교원 보호를 위해 이보다 더 다양한 방안들이 준비돼 있다”며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백번 동감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1차 회의에서는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인터넷 1인 1단말기가 올해 말로 따라 인터넷 환경은 그대로 인 상태에서 단말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환경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본예산에 인터넷 증속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은 꼭 반영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김호겸 의원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교원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사업들에 대한 간절함과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나 급할수록 되돌아보고 많은 고민을 통해 현명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거듭 당부했다.

김인창 기자

# 수원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마무리

### 조례안 37개 안건 처리 건설노동자 취업난 대책

수원시의회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한 제3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조례안 22건, 동의안 10건, 시정 질문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수원시의회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한 제3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현 의원) 등으로 이 10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시정 질문에는 배지환(국민의힘, 대탄1·2·3·4동) 의원이 민선8기 공약사업인 경기남부국제공항, 기업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 9건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윤경선(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수원시 건설노동자들의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인 제378회 임시회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희열 기자

www.designdaejin.co.kr

수목원가는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늘 처음느낌처럼 진정한 책을 만났을 때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感  
처/음/느/낌

도서출판 수목원 가는길

Design DAEJIN 디자인대진 | DESIGN M 디자인엠 | 포천인쇄 | 삼원기획 | 아이엔피

www.designdaejin.co.kr  
T. 031.541.1070 M. 1577-1056@hanmail.net